

이성영(李聖英) 목사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교회(1939년)
중앙 오웬 스틸 선교사 우측에 앉은 분(흰색 원)이 담임목사 이성영이다.
[출처: Tokyo Christian]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이성영(李聖英)은 1927년 8월 1일 경북 경주군 경주면 로동리 10 소재 경주성결교회에 포교계가 제출되면서 공식적으로 목회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제0227호 3면, 소화 2년 9월 29일). 이어 같은 관보에는 이명헌에서 이성영으로 포교담임자 변경계가 제출된 사실도 확인된다

(제0227호 6면, 소화 2년 9월 29일).

그 후 1936년 6월 30일에는 경남 김해군 김해읍 동상동 746 소재 김해성결교회로 포교자 거주지 이전계가 제출되었고(제2896호 7면, 소화 11년 9월 5일), 같은 해 11월 1일에는 천세봉에서 이성영으로 포교담임자 변경계가 다시 제출되었다(제3007호 6면, 소화 12년 1월 26일).

1940년 6월 15일에는 김해성결교회의 포교담임자가 이성영에서 차창복으로 변경되었으며(제4104호 2면, 소화 15년 9월 24일), 같은 해 9월 24일에는 이성영의 포교 폐지계가 제출되었다(제4256호 13면, 소화 16년 4월 2일).

한편 김해제일교회 약력에는 이성영이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934년 7월 25일부터 1938년 6월 8일까지 사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성우청년회 등을 조직하며 청년 사역과 지역 복음화에 힘쓴 것으로 소개된다.

또한 「도쿄 크리스천」 1939년 4월호는 일본 도쿄 심천(후카가와)조선인기독교회가 약 6개월간 목회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1938년경 이성영이 부임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가 심천조선인기독교회에 언제까지 재직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1941년 1월 21일 요츠야기독교회 선교부 회합에 참석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 회합은 일본기독교단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성영은 삼하도(미카와시마)조선인기독교회의 이원균 목사와 함께 가입 찬성 입장에 섰다. 선교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목회자들은 다수결로 가입을 추진하였다("A Statement of Facts," *Tokyo Christian*, April 1941, 40 no. 6, 3).

그러나 1941년 4월 1일 새 종교법 시행으로 선교부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선교사들이 귀국했으며, 같은 해 12월 7일 태평양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일본 내 조선인 교회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 선교사들은 1941년 말까지 후원금을 일괄 지급한 뒤 철

수하였고, 이원균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성영 역시 1941년 어느 시점에 심천조선인 기독교회를 사임하고 귀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츠야선교부 소속 일본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제1·4·5교회 목회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도 조선인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일본기독교단 가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들 교회는 모두 전쟁 중 피폭되어 파괴되었고 교인들은 흩어졌다. 역설적으로, 통합교단 가입을 거부한 제4교회만이 피폭을 면하고 살아남았다. 담임목사 신한유는 징집되어 종전까지 6년간 중국에서 복무하였고(John T. Chase, "Open Doors in Japan and Korea," *Christian Standard*, 15 February 1947, p.105), 사모는 일본기독교단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단에 가입한 목회자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고, 1947년 선교사들이 재입국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유일한 교회가 되었다.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는 전후 복구되어 오늘날 동경복음교회로 이어지고 있으며, 1941년 6월 24일 33개 개신교 교파가 통합되어 결성된 일본기독교단(일본그리스도교단, The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조선총독부관보의 기록이 김해제일교회 약력 및 「도쿄 크리스천」의 연대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성결교회 포교관리자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나중에 몰아서 신고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김해제일교회 연혁(<https://www.1stch.com>); John T. Chase, "Open Doors in Japan and Korea," *Christian Standard*, 15 February 1947, p.105.; *Tokyo Christian*, 1939년 4월호; "A Statement of Facts," *Tokyo Christian*, April 1941, 40 no. 6, 3.; 「조선총독부관보」 1927.9.29.; 1936.9.5.; 1937.1.26.; 1940.9.24.; 1941.4.2.;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